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정책 추진방향

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

1996년도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4,532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49,925톤/일의 29.1%를 차지하며, 재



신현국 과장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활용품을 제외할 경우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량의 무려 39.4%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1995년도에 비하여 하루 543톤이 감소함으로써 한 사람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4kg에서 0.32kg으로 줄어 들었다.

음식물쓰레기는 92.8%에 달하는 13,486톤/일을 매립처리하고 3.3%에 불과한 476톤/일만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어 생활쓰레기 재활용율 26.2%에 비하여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퇴비화와 사료화가 주된 것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공공시설 45개소, 민간시설 46개소 등 모두 91개소의 자원화시설에서 하루 1,493톤의 처리규모로 가동중에 있는데, 그중 퇴비화시설이 52개소 698톤/일 규모이고, 사료화시설은 39개소 795톤/일 규모이다.

91개의 운영중인 시설외에 공공시설 35개소, 민간시설 17

〈표 1〉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

(단위 : 톤/일)

구분	'94	'95	'96
생활쓰레기 발생량	58,118	47,774	49,925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8,055	15,075	14,532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kg/인·일)	0.41	0.34	0.32

〈표 2〉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단위 : 톤/일)

구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94	18,055(100%)	17,573(97.3%)	316(1.8%)	166(0.9%)
'95	15,075(100%)	14,387(95.4%)	372(2.5%)	316(2.1%)
'96	14,532(100%)	13,486(92.8%)	570(3.9%)	476(3.3%)

〈표 3〉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분		시설 수 (개소)	시설규모(톤/일)
총계	계	91	1,493
	퇴비화	52	698
	사료화	32	795
공공시설	소계	45	451
	퇴비화	29	339
	사료화	16	112
민간시설	소계	46	1,042
	퇴비화	23	359
	사료화	23	683

〈표 4〉 설치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분		시설 수 (개소)	시설규모(톤/일)
총계	계	52	2,043
	퇴비화	33	1,013
	사료화	19	1,030
공공시설	소계	35	1,064
	퇴비화	24	684
	사료화	11	380
민간시설	소계	17	979
	퇴비화	9	329
	사료화	8	650

개소 등 52개 시설이 설치 추진중에 있다.

2. '98년의 여건과 전망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 및 음식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감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인하여 조금씩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IMF여파로 각 가정이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증될 것이고, 환율상승에 따라 사료원료 수입 가격이 25kg짜리 1포당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30%이상 폭등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의 사료이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줄어들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재활용 방안으로 퇴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98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축산농가에서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은 주로 돼지사료로 이용되고 있고 기타 오리 및 개사료로 소량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료화방식도 원

형 그대로 먹이로 제공하는 방식, 건조나 건조·발효, 습식발효 사료화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술중 경제적인 습식발효 사료화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에 의한 재활용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하겠다.

3.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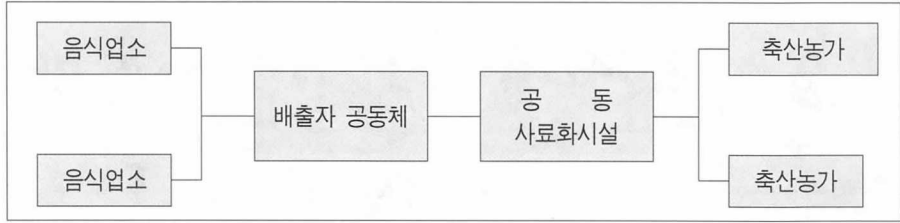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알뜰한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지속전개, 음식낭비 억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발굴 확산, 민간사회단체 주도의 『남은음식 재이용 운동』전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의무화, 결혼식 등 각종 행사시 지나친 음식제공 강령억제 등 음식낭비 억제를 위한 국민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6만2천여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강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시행 확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시 자원화시설 설치의무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확충, 민간자원화 전문업체 지원·육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간 28억 달러어치 1,400만톤의 사료원료를 수입함으로써 사료의 91.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IMF 파동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시 사료화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 지원

'98년도에 지원 (그림 1)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소비체계

할 9개시설 65억원 외에 소각시설 설치지원 예산에서 소요예산을 대폭 전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및



축산농가의 소비 체계가 구축된 자치단체의 사료화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설설치 비용부담 및 수거·운반을 전담하고 축산농가등 민간재활용자가 시설운영 및 사료이용을 전담하는 체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지원 확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중간처리업자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시설설치 자금을『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서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로 100억원을 지원하되 추가 소요물량이 많은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1월중에 기금운용 요강을 공고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조합등 축산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농림부와 협의하여 축산발전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수집·운반 및 소비체계 구축

'98년 상반기중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위한『재활용 창구』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알선을 추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음식점 밀집지역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서는 배출자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사료화시설 설치지역에서는 사료이용 축산농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축산농가에서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축산농가에서 원료공급을 원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운반하여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점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수집·운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수료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라.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주관하고 국립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업체 및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습식발효 사료제조시설을 시범설치하고 표준모델 개발 및 생산자료의 효용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이외에도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바 그 주요 연구과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건조 및 습식발효 사료기술 등 사료제조 유형별 사료생산 효율성 평가 둘째, 음식물쓰레기 사료유형별 영양가치 평가, 가축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육질개선방안 연구 셋째, 음식물쓰레기 이용사료에 대한 사료공정규격 설정 등이다. **養豚**